

요 약

2018년 2/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소폭 상승

- 2018년 2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지수 기준 97.8로 전 분기 대비 0.5p 소폭 상승
- 그러나 2017년 2/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기준치(100) 이상을 기록하였던 「소비자태도지수」가 최근 2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를 기록
- 2018년 2/4분기 서울의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하고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보합 수준
-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0.5p 상승한 86.6이며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와 동일한 96.0을 기록
- 1년 후 가구의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‘가계소득 감소’가 38.0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‘물가 상승’(22.1%), ‘경기 불황’(18.5%), ‘지출비용 증가 예정’(11.6%) 등의 순으로 조사
- 2018년 2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114.1로 전 분기 대비 0.8p 상승했으며,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도 101.2로 전 분기보다 1.3p 상승
- 품목별로 본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‘주거비’만 전 분기 대비 보합이고, 나머지 품목은 모두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

민선 7기 서울시장이 추진해야 할 정책 최우선 분야는 경제

- 서울시민은 민선 7기 서울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‘경제 분야’를 제시
- 1순위 기준으로 ‘경제 분야’가 52.9%로 가장 많았고, 그다음은 ‘환경 분야’(22.9%), ‘주택 분야’(10.7%), ‘여성·가족 분야’(3.8%) 등의 순으로 응답

- 민선 7기 서울시장이 경제 분야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1순위는 ‘일자리 창출’
 - ‘일자리 창출’이 38.4%로 1위를 차지하였고, 그다음은 ‘물가 안정’(22.8%), ‘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 안정’(13.7%), ‘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’(9.8%) 등의 순
-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을 둘 부문은 ‘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직업화’ 추진
 - 1순위 기준으로 ‘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직업화’가 31.5%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, 그다음은 ‘중소기업-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’(15.6%), ‘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강화’(15.2%) 등의 순

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은 ‘원인분석 및 관리체계 강화’

- 서울시민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‘미세먼지의 발생·이동·확산 경로 분석 등 원인분석 및 관리체계 강화’가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
 - 1순위 기준으로 ‘미세먼지의 발생·이동·확산 경로 분석 등 원인분석 및 관리체계 강화’가 35.4%로 가장 높게 조사
 - 그다음은 ‘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’(13.2%), ‘차량 요일제 강화’(12.8%), ‘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차량 2부제 강화’(11.2%) 등의 순

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BSI는 기준치 이하로 부진

-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6월 「체감경기 BSI」는 62.6으로 전월 대비 7.9p, 전년 동월 대비 0.5p 하락
 -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7월 「전망경기 BSI」도 79.3으로 전월에 견줘 3.5p 하락

전통시장 체감경기도 기준치 이하이면서 2개월 연속 하락

-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6월 「체감경기 BSI」는 55.3으로 전월 대비 8.8p 하락하고, 전년 동월 대비로는 2.5p 상승
 -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7월 「전망경기 BSI」는 75.0으로 전월보다 8.1p 하락

서울시 지원정책 만족도는 높지만 전반적으로 업황은 저조

-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시장 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, 청년상인 창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
- 다만 시장별로 시설적인 면에서는 주차장과 공공화장실, CCTV 설치 등을, 지원 사업 중에서는 전통시장 매니저와 배송매니저의 지원 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
- 또한 전통시장의 카드수수료 인하 및 임대료 인상 등의 대책을 희망
- 전통시장의 업황은 시장별로 다르지만,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
-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체로 매출이 줄고 경기가 안 좋다고 인식
- 일부 시장은 시장의 차별화를 위한 홍보 및 상품개발, 서비스 개선, 지역기관들과의 협력 등의 노력을 경주

외래관광객은 증가 추세이지만 관광경기 활성화는 아직 미흡

- 2/4분기 명동관광특구 매출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전 분기(기준=100) 대비 90~95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지만, 전년 동기(기준=100) 대비로는 보합 수준 기록
- 2/4분기 동대문관광특구 매출은 한한령 완화에 따른 중국 바이어 방문 재개 등으로 전 분기(기준=100) 대비 115 수준, 전년 동기(기준=100) 대비로는 130 수준으로 증가
- 2/4분기 이태원관광특구 매출은 내국인의 소비 부진 등으로 전 분기(기준=100) 대비 80 수준, 전년 동기(기준=100) 대비 70~75 수준으로 크게 하락
- 관광특구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 강화 필요
- 해외 도시에 적극적인 서울 홍보와 내국인의 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
-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와 동대문 의류소매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집객효과 극대화
- 개성 넘치는 세입자와 건물주의 상생으로 이태원의 매력도 향상 등